공동체 소식

연중 제14주일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 안내: 한국 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이나 이날과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 이번 주간의 성인
- 7/11(수) : 성 베네딕도아빠스 기념일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7월 정기회의
- 일시: 다음 주일(7/15)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교육관.

▣ 오마하 ME주말 교육 안내 - 일시: 9월 15-16일, 1박2일(토,일)
- 장소: 오마하 성당, 참가신청은 별도의 문의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9	220	500	31
차 주	461	340	498	29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지안 요한
차 주	정예진 한나	김정훈 로베르토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봉사조
차 주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 헌금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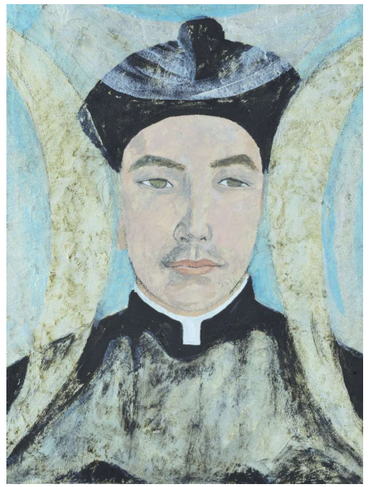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차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눈에서 너울을 걷어 내시고, 성령의 빛을 주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성자의 낮추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알아 보고, 우리의 나약함에서 부활의 힘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으시고 작은 목선 하나로 망망대해를 건너셨습니다. 짧은 사제 활동을 하다 26세의 나이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관리들은 40차례의 문초 끝에,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를 발랐습니다. 여덟 번째 칼날에 목이 떨어질 때까지 죽음에 맞서신 기백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아!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 조국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5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화 답 송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2,7ㄴ-10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6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생명의 말씀

알기 때문에 이웃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앎은 내적인 지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갈릴래아 호숫가 주변에서 말씀과 이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오시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마르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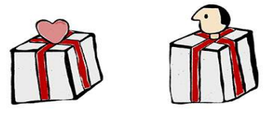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하는 그들은 바로 말씀이 끝난 그 순간에는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던 사람들입니다.(루카 4,22 참조) 그러나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집니다. 이렇게 싸늘해진 분위기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과 편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평범한 가정사를 안다는 사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지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지는 않는가?' 뒤돌아보니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잘 안다고 여기는 친구나 어떤 신자를 보며 화를 벌컥 내는 경우가 있는데, 화를 내는 내 속마음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라는 생각이 앞서며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기도하던 중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깊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은 내가 그를 잘 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내가 상대를 안다는 것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앎은 나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 누구를 앎으로써 그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앎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앎은 나의 내적 지식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를 알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를 알기 때문에, 더 배려하며 받아들이는 어느 신자의 표양을 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이성이 없는 마음은 맹신으로 변하고
마음이 없는 이성은 독선으로 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과 이성을 모두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마르 6,6)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마음의 재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의 권유로 '넝쿨(VINE)'이라는 교외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흥사단' 'YMCA, YWCA' 등이 있었지요. '넝쿨'의 정식 명칭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지오쎄)'의 아래 조직으로 '크리스천 학생넝쿨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 자유주제로 토론을 한 뒤, 친목의 시간을 갖고, 주일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일정이었지만 미사 참여를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비신자였던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비자 교리수업을 받으며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미사 중에 올리는 '기도문'들이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상생활과 학교 공부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이냐!'라는 자책감과 함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이라는 격언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자 기간 내내 그런 상태였기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보좌신부님께 진지한 태도로 "신부님, 저는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안 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 고백, 반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부님의 대답은 무정하게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미사 참례를 하면서 절실한 기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랐지만, 제 마음은 좀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사에 참례하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를 되돌아보면, 저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부자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청년이 재산을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저는 '자만'이라는 마음의 재물을 버릴 수 없어 '넝쿨'을 통해 처음으로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물'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은 바로 '나의 삶은 우선 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자만의 재물'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교만의 재물'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신부님의 책에서 '진정한 겸손은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은 뒤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수는 75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75억여 개의 크레파스와 같이 그 쓰임은 차이가 있지만 이 우주에서 하나뿐인 색깔로 존재하는 고유하고 존귀한 생명체로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느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개인을 복사 창조하신 일이 없으셨으니 그 무한한 생명 창조의 신비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처럼 세상에 하나만 있는 유용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극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의 그런 가치 판단 능력은 이미 하느님이 개개인에게 불어넣어주신 독존(獨存)의 가치가 우리 안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진민 세례자 요한 | 가톨릭상담심리사

교리상식

향은 언제 쓰나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가톨릭교회에서도 향을 피웁니다. 그러나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때는 제대를 축성할 때, 봉헌예물을 축성할 때 주례 사제가 분향하고, 주례자 축복과 신자들을 향한 축복,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거양할 때는 향 복사가 향을 칩니다. 이 외에는 부활성야 미사 때 부활초에, 기타 특별 미사 중에는 복음 낭독 전에 성경을 향해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 미사 때 고별예식에서 사제가 관에 분향합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